

## 『삼국지』 동이전에 기술된 ‘禮’의 의미와 양상

최유림\*

- I. 머리말
- II. 『삼국지』 동이전의 ‘禮’에 대한 기록과 의미
- III. 마한사회에서 ‘禮’의 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삼국지』 동이전에 나타나는 ‘예(禮)’의 표현을 분석하여, 2~3세기 한반도 남부 사회의 질서 인식과 수용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은 중국인의 시각에서 주변 민족의 사회상을 묘사한 기록이다. 이 글에서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서 예라는 개념은 지역 고유의 풍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마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한 사회에서는 누에치기와 직조, 장신구 제작 등 생활 기술이 전승되었고, 농경 제사와 천신 제사를 통해 공동체적 일체감이 형성되었다. 반면, 의책과 인수의 사용, 언어 교육 등은 중국 질서의 외형적 수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마한 사회는 궤배 의례나 장유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예법을 내면화하거나 제도화하지는 않았음을 추론하였다. 이는 마한이 중국의 질서를 외형적으로 수용하되, 그 이념적·질서적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율적인 문화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삼국지, 동이전, 풍속, 예, 마한

\* 충북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유학은 공자로부터 기원하여 그의 제자와 이후 현인들에 의해 전수된 학문 체계이다. 유학의 교리가 정치화·생활화·이념화되면 유교라 할 수 있다.<sup>1)</sup> 유학은 중국에서 前漢代 다른 학문을 초월하며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고대 중국의 정치·사회 각 요소에 예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학문·사상으로 기능하였다. 그 결과 유학 중심의 지배 체제가 만들어졌다. 유학의 교리는 국가제사로서의 五禮와 개인·가정의 의례인 冠婚喪祭로 규범화·예제화되며, 국가정치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禮’는 유학에서 강조하는 德治를 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sup>2)</sup>

2~3세기 한반도 남부의 정치·사회·풍속 등 사회상을 반영하는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이하 ‘『삼국지』 한전’)에도 禮라는 표현이 있다. 앞선 연구에서 『삼국지』 동이전에 중국의 덕치주의적 표현이 있음은 지적되었다.<sup>3)</sup> 다만 중국 정사에서 동이관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禮라는 표현에서 접근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장인성은 禮에 대해 중국 고대 尊卑貴賤의 구별과 정치·사회의 질서 유지를 포함한 의미로 간주하였고, 구체적으로 성곽의 축조와 인수·의책의 사용 등을 중국의 예적 질서로 보았다.<sup>4)</sup>

반면 김철준은 禮에 대해 지배 질서의 관점에서 살폈다. 제정분리의 사회는 제사장인 천군과 정치적 지도자인 족장(부족국가)으로 나뉘었다. 천군은 제사장으로 기존의 전통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고, 지도자인 족장은 공동체적 지배 질서에 기반하여 수립한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그는 韓의 정치적 지도자가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자 구축한 지배 질서를 중국에서 禮로 표현했다고 보았다.<sup>5)</sup>

기존 연구는 『삼국지』 한전에 기술된 ‘禮’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국한되어, 주로 마한 사회의 풍속 혹은 중국의 예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삼국지』는 陳壽에 의해 편찬되어 당대를 반영한 사료이다. 『삼국지』 동이전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편찬되어 한국 고대 사회의 실상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sup>6)</sup> 그럼에도 2~3세기 한반도 남부의 정치·사회·풍속 등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어, 『삼국사기』를 보완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sup>7)</sup> 더불어 『삼국지』에는 앞서 서술한 중국의 지배 체제의 양상이 직간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삼국지』의 禮라는 표현은 『삼국지』의 편찬 목적과 중국의 예적 지배 체제의 구

1) 李丙燾, 1987, 1쪽.

2) 彭林, 1997, 295쪽.

3) 全海宗, 1979, 67쪽.

4) 장인성, 2001, 40~41쪽.

5) 金哲垞, 1970, 113쪽.

6) 이강래, 2005, 320쪽.

7) 盧重國, 1988, 25쪽 ; 신승하, 2000, 92~93쪽.

현, 주변 민족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본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전체에 기술된 ‘禮’ 관련 서술을 비교·검토함으로써, ‘禮’가 지역 고유의 질서와 중국 중심의 예제 질서 사이에서 어떻게 혼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마한의 예의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삼국지』 동이전의 ‘禮’에 대한 기록과 의미

『삼국지』 동이전에 서술된 ‘禮’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아래의 사료를 살피고자 한다.

A) 그 北方의 郡과 가까운 諸國은 약간의 禮俗을 알고 있다. 그 먼 곳은 囚徒奴婢가 서로 모인 곳과 같다.<sup>8)</sup>

위 기록에 의하면 마한 소국 가운데 한군현과 가까운 곳에서는 약간의 禮俗을 알고 있었다. 이때 禮는 俗과 함께 쓰이고 있다. 俗은 『漢書』地理志에서 君主의 情欲에 수반한 것이라 하였다. 반면 水土의 風氣에 관계된 것은 ‘風’이라 하였다.<sup>9)</sup> 중국에서는 자연·인문환경에 영향을 받아 風俗이 형성되고,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고 여겼다. 그리고 국가 정치 활동의 중요한 행위 중 하나로서, 풍속의 관찰과 교정을 들었다.<sup>10)</sup> 이는 유학에서도 위정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유학의 오경 중 하나인 『시경』은 지방의 풍속과 민중의 분위기를 느끼고, 정치 교화를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읽혔다.<sup>11)</sup>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서 사용된 俗도 『한서』에서 내린 俗의 정의와 유사했다고 생각된다. 아래의 사료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내 俗에 관한 내용이다.

B-1) 그(오환선비) 習俗과 前事は 한나라의 기사를 편찬한 사람이 이미 기록해 두었다.<sup>12)</sup>

B-2) 荒域 밖은 여러 번의 통역을 거쳐야 이르게 되어, 발걸음이나 수레가 닿지 않아 그 國의 俗이 중국과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 드디어 여러 나라를 두루 관찰하고 그 法俗을 수집하여 크고 작음의 구별과 각 名號를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sup>13)</sup>

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9)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凡民函五常之性, 而其剛柔緩急, 音聲不同, 繫水土之風氣, 故謂之風. 好惡取舍, 動靜亡常, 隨君上之情欲, 故謂之俗.”

10) 洪承賢, 2002, 15~19쪽.

11) 『한서』卷30 藝文志10, “書曰, 詩言志, 歌詠言. 故哀樂之心感, 而歌詠之聲發. 誦其言謂之詩, 詠其聲謂之歌. 故古有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 知得失, 自考正也.”

12) 『삼국지』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烏丸鮮卑, “其習俗前事, 撰漢記者已錄而載之矣.”

13) 『삼국지』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夷,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 B-3)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이는 흉노와俗이 같다. … 옛 부여의俗에는 장마와 가  
 몹으로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으면, 도리어 허물을 왕에게 돌린다.<sup>14)</sup>
- B-4) 그(고구려)俗은 음식을 아껴먹으나 궁실의 치장은 좋아한다. … 그俗은 혼인을 이룰 때 말  
 로 이미 정해두고, 여자의 집에서는 大屋의 뒤편에 小屋을 지어 婿屋이라 하였다. … 그俗은  
 음란하다.<sup>15)</sup>
- B-5) 그(북옥저)俗은 남과 북이 모두 같고, 읍루와 접해있다. … 그俗은 매 7월에 童女를 취하여  
 바다에 빠트린다.<sup>16)</sup>
- B-6) (예의) 言語法俗은 대저 句麗와 같고 의복은 다름이 있다. … 그俗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  
 천에 각기 부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sup>17)</sup>
- B-7) 그(마한)俗은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는 郡에 가서 朝調할 때 모두 衣幘을 받아왔다. 스스로  
 印綬와 衣幘을 착용한 자가 천여 인이었다. … 그俗은 綱紀이 흐리고 國邑에 비록 主帥가  
 있으나 邑落에 雜居하여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sup>18)</sup>
- B-8) (변진의) 嫁娶하는 禮俗에는 남녀에 구별이 있다. …俗은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기를 좋아한  
 다. … 그俗은 길에서 서로 마주치면 모두 길을 양보한다. … 言語法俗은 서로 비슷하다. …  
 法俗은 특히 엄중하다.<sup>19)</sup>
- B-9) 그(왜) 風俗은 음란하지 않고, … 그俗은 일을 거행하거나 오고 가서, 말하고 행동해야 함이  
 있으면 항상 뼈를 불에 태워서 점을 쳐서 길흉을 묻고 먼저 점친 내용을 알린다. 그 말은 龜  
 龜의 법과 같다. … 그俗은 國의 大人은 모두 4~5명의 부인을 둔다.<sup>20)</sup>

B-1)과 B-2)는 각각 『삼국지』 오환선비전과 동이전의 序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其習俗前  
 事’,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라는 서술은 중국 바깥 민족의俗  
 이 중국과 다른 그 지역만의 고유한 환경임을 짐작케 한다. B-3-9)는 부여조, 고구려조, 북옥  
 저조, 예조, 마한조, 변진조, 왜조에서 사용된俗의 용례로, 혼인·식생활·의복·예의·길

14)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 舊夫餘俗, 水旱不  
 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15)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俗節食, 好治宮室. … 其俗作婚姻, 言語  
 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 其俗淫.”

16)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 其俗常以七月  
 取童女沈海.”

17)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言語法俗, 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 其俗重山  
 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18)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調, 皆假衣幘, 自服印綬  
 衣幘千有餘人. …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跪拜之禮.”

19)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調, 皆假衣幘, 自服印綬  
 衣幘千有餘人. …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 其北方近郡諸國差  
 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 嫁娶禮俗, 男女有別. … 俗喜歌舞飲酒. … 其俗, 行者相  
 逢, 皆住讓路. … 言語法俗相似. … 法俗特嚴峻.”

20)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倭, “其風俗不淫, 男子皆露紒, 以木縣招頭. … 其俗  
 舉事行來, 有所云為, 輒灼骨而卜, 以占吉凶, 先告所卜, 其辭如令龜法, 視火坼占兆. … 其俗,  
 國大人皆四五婦.”

흥·점복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삼국지』에서의 俗은 『한서』 지리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제도, 규칙, 법, 여론 등 인문환경과 관련된 용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禮’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사기』, 『한서』, 『후한서』 등에서 四夷의 여러 세력을 기술하고 있는 양상과 달리, 『삼국지』에서는 오환·선비·동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A) 사료에 기술된 禮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풍속을 기술하고 있는 오환선비동이전 전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C-1) 烏丸은 … 그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은 모두 먼저 사사로이 통한 후 대제로 여성을 빼앗아 달아나고 또 반년이나 백 일이 지난 연후에 媒人을 보내 말·소·양을 전달하여 이를 聘娶의 禮로 삼았다.<sup>21)</sup>
- C-2) 선비 … (軻比能은) 輔國將軍 鮮于輔에게 편지를 보내 … 우리 夷狄은 비록 禮義를 알지 못하지만 형제와 자손은 天子의 印綬를 받았습니다. 소와 말도 물과 풀이 좋은 것을 압니다. 하물며 저에게 어찌 사람의 마음이 없겠습니까.<sup>22)</sup>
- C-3) 비록 夷狄의 나라이지만 俎豆의 象이 남아 있다. 중국이 禮를 잃으면 四夷에서 구한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다.<sup>23)</sup>
- C-4) 東沃沮는 …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굳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어 步戰을 잘한다. 食飮, 居處, 衣服, 禮節은 句麗와 흡사하다.<sup>24)</sup>
- C-5) 弁辰은 … 土地는 비옥하여 五穀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蠶桑을 알아 縑布를 만들었다. 소와 말을 달 줄 알았다. 嫁娶하는 禮俗은 남녀의 別이 있었다.<sup>25)</sup>

위 기사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 기록된 ‘禮’의 사례이다. C-1)에서 ‘聘娶之禮’는 烏丸의 혼인 절차를 의미한다. 오환에서는 혼인할 때 먼저 사사로이 통한 후 여성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고 있어, 약탈혼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聘娶之禮’는 오환의 고유한 혼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유학의 영향으로 異姓婚과 六禮를 기반으로 한 혼인을 행했기 때문이다.<sup>26)</sup> C-4)에서도 東沃沮의 음식, 거처, 의복, 禮節이 고구려와 흡사하다고 한 점은, C-1)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C-5)에서도 유사한 모습이다. C-5)에서는 弁辰에서 혼인할 때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

21)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烏丸, “烏丸 … 其嫁娶皆先私通, 略將女去, 或半歲百日, 然後遣媒人送馬牛羊以爲聘娶之禮.”

22)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鮮卑, “鮮卑 … 乃與輔國將軍鮮于輔書曰 … 我夷狄雖不知禮義, 兄弟子孫受天子印綬. 牛馬尚知美水草, 況我有人心邪.”

23)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夷,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24)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東沃沮 … 人性質直彊勇. 少牛馬, 便持矛步戰. 食飮居處衣服禮節, 有似句麗.”

25)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 “弁辰 …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禮俗, 男女有別.”

26) 『禮記集說大全』 昏義.

고 한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男女有別은 유교 윤리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다. 『삼국지』 한전 소인 魏略에서 “그들은 옮겨온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한의 제재를 받는다.” 고 하여,<sup>27)</sup> 정황상 변진에 중국의 질서가 전해졌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뒤이어 장례와 가옥 구조, 사람들의 성향, 편두, 문신 등 변진이 본래부터 가진 고유한 습속을 서술하고 있다. C-5)의 남녀유별은 중국 예제의 근간인 남녀유별과 다른 질서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C-1), C-4), C-5)에서 사용된 禮는 각 종족의 사람들이 생활하며 형성된 고유한 습속 가운데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C-2)와 C-3)에서 禮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C-2)에서 선비족의 軻比能은 ‘선비는 禮義를 알지 못하지만 형제와 자손은 천자의 인수를 받았다.’ 고 하였다. 선비가 중국의 예절이나 규범 등을 몰랐음에도 대대로 천자의 인수를 받아 중화 질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문장에서 예의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나타낸다. C-3)은 『삼국지』 동이전 序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동이는 오랑개의 나라이지만 俎豆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이 禮를 잃었을 때 이를 동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C-2)과 C-3)에서 사용된 禮는 중국 왕조 중심의 질서 관념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서는 인문환경에 관련하여 각 종족이 지닌 고유한 습속을 뜻하는 禮와, 중국 중심의 질서가 반영된 禮가 혼재되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이 편찬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 중국 왕조에서는 황제 중심의 지배 질서 확립을 위해 내외의 풍속을 조사하였다. 반면 현실은 군현지배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질서를 강조하고자 이민족의 음식과 의복, 언어 등의 차이를 가리키며 이민족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였고, 자신들은 중화라 자처하였다. 『삼국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동이 간의 俗을 분별하려는 시도가 보인다.<sup>28)</sup>

결론적으로 중국 왕조는 각 종족의 고유한 질서를 중국의 지배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을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왕조 중심의 禮와 각 종족이 본래부터 가진 질서 가운데 禮가 혼용되었다.

### Ⅲ. 마한사회에서 ‘禮’의 양상

중국 왕조에서는 韓 사회를 중국의 지배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의도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 반영되었고, 중국 중심의 禮와 삼한의 각 소국이 가진 본래의 습속 가운데 禮가 혼용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 입장에 입각하여 『삼국지』 한전의 마한조에

27)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28) 정하현, 2009, 38~52쪽 ; 김경호, 2017, 39~43쪽 ; 정덕기, 2020, 199~201쪽.

서술된 마한의 습속을 구분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D-1) ①그 백성은 土著生活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蠶桑을 알고 綿布를 만들었다. … ②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였다.<sup>29)</sup>

D-2)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놀며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그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다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춘다. 節奏는 鐸舞와 비슷하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또한 이와 같이 한다.<sup>30)</sup>

마한은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기르는 방법을 알았으며, 綿布를 만들었다(D-1-①).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38년(20)에도 농사와 양잠을 권했다고 하여,<sup>31)</sup> 삼국 초기부터 농업 및 양잠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슬을 귀하게 여겨 의복을 장식하거나 장신구로 활용했다고 한다(D-1-②). 이 기록에서는 장신구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수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결국 마한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마한의 각 소국에서 국가·왕실 주도의 교육이 행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D-2)의 사료는 마한의 농경 제사와 천신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5월과 10월 농사철에 치러지는 제사에서는 음악과 춤이 따라왔다. 그 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앞사람의 뒤를 따라가다가 땅을 밟고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면서, 손과 발은 장단을 맞췄다. 마한 사람들은 농경 제사를 지내며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sup>32)</sup>

유교에서 음악과 춤은 예를 구현하면서, 앞으로 전해야 할 행위이다. 『시경』의 일부 시에는 고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계절제 등 대규모 축제에서 발현되고, 의례와 관련된 규범을 다른 禮書보다 더 잘 드러냈다.<sup>33)</sup> 마한 농경 의례에서 즐기던 노래와 춤이 고대 중국인들이 공유했던 유교 사상이나 축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유학에서 음악과 춤의 의미와 같이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이후 세대로 전해야 할 사회 공통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농경의례를 지내는 장

29)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 以瓔珠爲財寶, 或以綵衣爲飾, 或以縣頸垂耳.”

30)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31) 『삼국사기』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38年, “三月, 發使勸農桑, 其以不急之事擾民者, 皆除之.”

32) 徐永大, 1985, 248쪽 ; 노중국, 2010, 86쪽.

33) 마르셀 그라네 지음·유병태 옮김, 2010, 71~76쪽.

소는 이러한 공동체적 일체감을 전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sup>34)</sup> 결국 위의 사료에서는 마한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풍속이 여전히 유지되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마한에는 중국의 질서가 유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살펴 고자 한다.

- E-1) ①그 俗은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는 郡에 가서 朝謁할 때 모두 衣幘을 받아왔다. 스스로 印綬와 衣幘을 착용한 자가 천여 인이었다. ②部從事 吳林은 樂浪이 본래 韓國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辰韓 八國을 분할하여 樂浪에 넣으려 했다. 관리가 통역하여 말을 전하는 데에 차이가 있었다.<sup>35)</sup>
- E-2) ①그 俗은 綱紀이 흐리고 國邑에 비록 主帥가 있으나 邑落에 雜居하여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 ②跪拜하는 禮가 없다. ③居處는 草屋土室을 만드니 모양이 무덤과 같다. 그 문(戶)은 윗 부분에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안에 살며 長幼男女의 구별이 없다.<sup>36)</sup>
- E-3) 그 北方의 郡에 가까운 諸國은 禮俗에 다소 밝았으나, 먼 곳은 흡사 죄수와 奴婢가 모여 사는 곳과 같았다.<sup>37)</sup>

마한 사람들은 衣幘印綬를 지녔다. 마한 사람들은 衣幘을 좋아하여 下戶는 한군현에 가서 衣幘을 받아왔다(E-1-①).<sup>38)</sup> 의책은 『三國志』 高句麗傳에서 “(고구려가) 玄菟郡에 가서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다.” 고 하고 있다.<sup>39)</sup> 마한과 고구려 모두 한군현과 관계에서 의책을 활용

---

34) 마한 유적 가운데 環溝를 둘러 둥근 원의 내부에 공간을 조성한 유구가 보령 명천동, 익산 영등동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환구의례라 하여 지역사회의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장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종철, 2023, 42쪽). 이밖에도 암각화가 새겨진 곳, 농사가 행해진 곳 등에서 농경의례가 행해졌음을 추정할 견해도 있다(노중국, 2010, 87-88쪽).

35)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36)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跪拜之禮.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舉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

37)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38) 『삼국지』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에서 “皆假衣幘”은 “衣幘을 빌리다[假]”로 해석하고 있다(國史編纂委員會, 1987, 285쪽 ; 정덕기, 2020, 197쪽). 반면, 사어의 의미에서 “하호들이 군에 이르러 조공을 바치고 알현하면 모두 의책을 준다.” 고 해석하기도 한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0). 더 나아가 바로 뒤의 문장에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가 이어진다는 점과 『晉書』 卷25 志15 輿服의 “諸假印綬, 而官不給鑿囊者, 得自具作, 其但假印不假綬者, 不得佩綬.” 라는 기록이 『삼국지』 한전의 기록과 유사한 문장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假’는 사어체제라는 법제 내에서 실제 사어와 별개로 한군현이 인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스스로 착용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武田佐知子, 1984, 213-214쪽 ; 정혜경, 2001, 119-120쪽 ; 박대재, 2007, 248쪽).

39) 『삼국지』 卷30 魏書30 東夷 高句麗,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 정덕기, 2020, 208-209쪽. 정덕기는 마한에서 대외교류용으로 후한 조복을 입었고, 조복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복을 착용할 수 있는 ‘계층성’에 주목하여, ①조복을 갖춘 자, ②조복을

하였다.<sup>40)</sup> 의책은 마한 사람들이 평소 입던 일상복과 달랐다. 마한 사람들은 머리를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냈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sup>41)</sup>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의책은 평소에 마한 사람들이 입는 일상복이 아닌, 한군현과 관계에서 착용했던 옷임을 알 수 있다. 마한 사람들은 印綬도 지녔다. 인수는 해당국의 지배권을 용인해준다는 의미이다.<sup>42)</sup>

의책과 인수는 모두 관인의 신분을 직관적·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의책과 인수 등으로 신분을 드러내고 예를 구현했다.<sup>43)</sup> 복식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방법은 예를 구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의책과 인수는 모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국의 문물이다. 의책과 인수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질서가 형성되었다. 마한 지배층들은 중국의 위계 질서를 반영한 문물에서 권위를 빌려 그들의 위상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위계 질서를 상징하는 문물을 상당히 선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역하는 관리[吏譯]의 존재 역시 주목된다(E-1-②). 부중사 오림의 말을 통역하는 관리가 잘못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중국과 관계에서 언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언어와 통역 기술을 보유한 자들이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마한에는 跪拜하는 예가 없었다(E-2-②). 궤배는 중국에서 공경의 뜻을 담은 인사법이다.<sup>44)</sup> 궤모습은 중국의 질서에 편입되어 중국인처럼 꾸미면서도 안으로는 중국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마한은 중국의 질서와 예법에서 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와 의미까지 받아들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마한 사회에 長幼男女의 구별이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E-2-③). 이를 단일가족 단위가 아닌 몇 쌍의 부부가 거처하는 공동 세대로 해석하거나,<sup>45)</sup> 앞 문장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성원별로 주거 공간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sup>46)</sup> 그렇지만 그 이면에 마한의 주거 양식이 중국인의 시각에 이질적으로 비춰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長幼男女의 구별 가운데 男女有別은 중국 의례서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禮의 근본이다. 남녀가 有別한 이후에야 부부의 義가 있고, 부자의 親이 있으며, 군신의 正이 있다고 하였다.<sup>47)</sup> 『예기』 內則과 昏義 등에는 남녀유별의 예가 주거 공

때때로 갖출 자, ③조복을 갖출 필요가 없는 자로 구분하였다.

40)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18~119쪽.

41) 『삼국지』 卷30 魏書30 東夷 韓,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彊勇, 魁頭露紒, 如吳兵, 衣布袍, 足履革躡蹠.”

42) 배재훈, 2010, 3쪽.

43) 장인성, 2001, 41~46쪽 ; 정덕기, 2020, 190~191쪽 ; 나용재, 26~27쪽.

44) 『한서』 卷22 禮樂志2, “畏敬之意難見, 則著之於享獻辭受, 登降跪拜.” ; 李爲香, 2014, 237~241쪽.

45) 백남운 저·박광순 옮김, 1989, 124쪽.

46) 朱南哲, 1976, 45쪽 ; 權五榮, 1996, 76쪽.

47) 『예기집설대전』 昏義, “敬愼重正, 而后親之, 禮之大體, 而所以成男女之別, 而立夫婦之義也. 男女有別, 而后夫婦有義, 夫婦有義, 而后父子有親, 父子有親, 而后君臣有正, 故曰, 昏禮者, 禮之本也.”

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살필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 결국 마한에 중국의 예가 아직 보편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앞선 시대의 전통이 급속히 변모하는 시기로 이해하는 견해가 주목된다.<sup>48)</sup> 이 시기에는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요소와 이를 저해하려는 요소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다. 韓의 소국들은 중국 문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國邑에 비록 主帥가 있으나 邑落에 雜居하여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는 표현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E-2-①). 韓이 명목상 군현체제로 편입된 상태일지라도 군현에서 동이에 대한 실질적 지배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삼국지』에서는 마한 사회를 紀綱이 부족하지만, 그 北方의 郡과 먼 곳은 囚徒奴婢가 서로 모인 곳과 같다고 표현하였다(E-2-①, E-3). 반면 한군현과 가까운 지역은 禮俗에 밝았다(E-3). 연구에서는 이 표현을 부족국가적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sup>49)</sup> 그렇지만 『삼국지』에서 군현과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을 대비시켜 두고 있는 문맥과 『삼국지』 동이전이 편찬된 배경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예속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된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平壤 貞柏洞 364號墳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은 동아시아에서 확인된 『논어』 목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sup>50)</sup> 漢 문화가 군현의 말단인 낙랑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현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예속을 알았다는 표현과 연결시켜 보면 백제를 포함한 군현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중국 유학 관련 지식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F-1) 桓靈之末에 韓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다수 韓國으로 유입되었다.<sup>51)</sup>

F-2) 먼 조상은 쇠약한 한나라 말년에 큰 바다를 건너 피난하였고, 胤緒는 韓에 의지해 처음 왔을 때 熊浦를 근거지로 하여 가문을 이루었다.<sup>52)</sup>

2세기 중후반 韓濊가 강성해지면서 한군현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sup>53)</sup> 한군현 사람들 다수가 한국으로 유입되었다(F-1). 『후한서』 동이열전에도 이와 동일한 기사가 실려 있다.<sup>54)</sup> 313년 이후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면서 한군현계 유민들의 유입은

48) 金哲堧, 1976, 9쪽 ; 徐永大, 1991, 19쪽.

49) 金哲堧, 1970, 109쪽.

50) 李成市·尹龍九·金慶浩, 2009, 129쪽.

51) 『삼국지』 卷30 魏書30 東夷 韓,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52) <陳法子墓誌銘> “遠祖以衰漢末年, 越鯨津而避地, 胤緒以依韓導日, 託熊浦而爲家.” ; 이하 이 논문에서 <진법자묘지명>의 판독 및 해석은 ‘김영관, 2014, 107~111쪽’ 을 따랐다.

53) 공손씨 정권이 요동에서 자립하여 주변 세력에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후한 정권은 낙랑군에 대수를 파견하지 못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삼국지』 한전의 기록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오영찬, 2006, 179~185쪽 ; 宋知娟, 2004, 3~5쪽).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는 한군현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한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역시 존재했다. <진법자묘지명>에서는 진법자의 먼 조상이 한나라 말년에 난을 피해 熊浦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조금 더 뒤의 일이지만, 5세기 무렵까지도 중국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마한과 백제 지역으로 유입되었다.<sup>55)</sup>

이상을 토대로 마한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루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마한 사람들이 한군현으로 직접 가 의책과 인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중국 문화를 견문으로 학습하였다. 두 번째는 환령지말 한군현계 사람들이 마한으로 유입되며 중국 문화 역시 마한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세 번째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틈타 마한의 여러 소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가 들어왔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삼국지』 한전에 쓰인 禮의 의미를 고찰하고, 韓 사회의 모습을 禮의 관점에서 살폈다. 이를 위해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 기술된 禮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禮는 동이전의 序·동육저·마한·변진 조를 비롯해, 오환전, 선비전에 표현되어 있었다.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서는 중국 주변 세력이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며 형성된 고유한 습속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禮를 사용한 반면, 중국 중심의 질서를 의미하는 표현인 禮 역시도 사용하고 있다. 두 의미의 혼재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의 편찬 목적과도 결부되어 있어, 각 종족의 고유한 질서를 중국의 지배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삼국지』 한전에 기술된 마한의 습속을 위의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마한에는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는 법, 장신구 제작 기술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농경 제사와 천신 제사를 지내며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유지하였다. 기술 교육과 제사는 마한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풍속이 여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새로운 질서가 유입되기도 했다. 의책인수와 언어 교육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궤배하는 예나 장유남녀의 구별이 없었다는 표현은 마한인들이 겉으로 중국인처럼 꾸미면서도 안으로는 중국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마한은 중국의 질서와 예법에서 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와 의미를 받아들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투고일: 2025.05.23, 심사개시일: 2025.06.02, 게재확정일: 2025.06.13.

54)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韓, “靈帝末, 韓熾並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  
55) 金榮官, 2012, 106~110쪽 ; 김영관, 2014, 118쪽 ; 백길남, 2015, 10~15쪽.

## 【참고문헌】

### (자료)

『三國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梁書』

『禮記』 『禮記集說大全』

〈陳法子墓誌銘〉

### (국문)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1)』

김경호, 2017, 「古代 東아시아 社會에서의 ‘同[共存]’과 ‘異[對立]」, 『역사와 세계』51, 효원사학회.

金榮官, 2012, 「中國 發見 百濟 遺民 祔氏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24, 신라사학회.

김영관, 2014, 「百濟 遺民 陳法子 墓誌銘 研究」, 『백제문화』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金哲垞, 1970, 「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 『大東文化研究』6·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金哲垞, 1976, 「魏志, 東夷傳에 나타난 韓國古代社會의 性格」, 『韓國文化史論』, 知識産業社.

나용재, 2024, 『百濟 官服制의 성립과 운영』,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 研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노중국,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동북아역사재단, 2009,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4)-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증세사연구소 편, 2020, 『譯註 中國正史東夷傳(1)-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

마르셀 그라네 지음·유병태 옮김, 2010, 『중국사유』, 한길사.

文昌魯, 2000,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박대재, 2007, 「『三國史記』 都彌傳의 世界-2세기 백제사회의 계층분화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27, 한국고대학회.

배재훈, 2010, 「마한 사회의 印綬衣幘 전통과 백제의 金銅冠帽 사여」, 『역사학연구』38, 호남사학회.

백길남, 2015,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東方學志』1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백남운 저·박광순 옮김, 1989, 『조선사회경제사』, 범우사.

徐永大, 1985, 「『三國史記』와 原始宗教」, 『歷史學報』105, 歷史學會.

徐永大, 1991, 「韓國宗教史 資料로서의 『三國志』東夷傳」, 『한국학연구』 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宋知娟, 2004, 「帶方郡의 盛衰에 대한 研究」, 『史學研究』74, 한국사학회.

신승하, 2000,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오영찬, 2006, 『낙랑군연구』, 사계절.

이강래, 2005,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고대사」, 『전남사학』 25, 호남사학회.

- 李丙燾, 1987,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 李成市·尹龍九·金慶浩, 2009, 「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4, 한국목간학회.
- 이종철, 2023, 「마한의 제사유적과 익산 영등동 다중환구의 고고학적 의의」, 『한국상고사학보』120, 한국상고사학회.
- 장인성, 2001,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 全海宗, 1979, 「古代 中國人の 韓國觀-正史 朝鮮傳의 檢討에 의한 試論」, 『震檀學報』 46·47, 震檀學會.
- 정덕기, 2020, 「신라 上代 朝服의 존재와 용도」, 『한국고대사탐구』3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정하현, 2009,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내재한 세계관」,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 정혜경, 2001, 「三韓의 복식에 대한 연구-「三國志」 魏志 東夷傳을 통하여」, 『服飾』51-4, 한국복식학회.
- 彭林, 1997, 「禮와 중국 전통문화의 理性的 정신」, 『아시아문화』13,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洪承賢, 2002, 『中國 古代의 移風易俗-皇帝와 士大夫의 關係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중문)

- 李爲香, 2014, 「中國古代跪拜禮儀的基本形式與內涵演變」, 『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5, 中南大學.

(일문)

- 武田佐知子, 1984, 『古代國家の形成と衣服制：袴と貫頭衣』, 吉川弘文館.

**【Abstract】**

**Interpreting the Dual Connotations of Li(Ritual)  
in the Dongyi Zhuan of the Sanguozhi**

Choi, Yoo-lim  
(Lectur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xpressions of Li (禮, Ritual) found in the Dongyi Zhuan of the Sanguozhi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with the aim of examining how societies in the southern Korean during the 2nd and 3rd centuries perceived and adopted social order. The Dongyi Zhuan, compiled by the Chinese historian Chen Shou from a Chinese perspective, depicts the social conditions of neighboring people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ncept of Li in the Dongyi Zhuan is used in a dual manner: referring both to indigenous customs and to the ritual order centered on Chinese civi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Mahan, the study explores the specific aspects of Li in practice. In Mahan society, sericulture, weaving, and ornament-making were passed down as everyday skills, and agricultural and celestial rituals served to strengthen communal solidarity—these are considered manifestations of indigenous Li. In contrast, the adoption of Chinese attire and seals (yichek and insu) and the presence of language instruction reflect the external acceptance of Chinese order. However, the absence of practices such as kowtowing and distinctions based on age or gender suggests that Chinese ritual norms were not fully internalized or institutionalized. This indicates that Mahan selectively adopted the external forms of Chinese order while maintaining an autonomous cultural framework, resisting full assimilation of Chinese ideological and hierarchical principles.

**Keywords** : Sanguozhi, Dongyi Zhuan, Local Customs, Li, Mahan society